이해리 기자의 칸 리포트 | 디캐프리오 & 브래드 피트 '월드 섹시 카리스마'

영화같았던 두 남자의 레드카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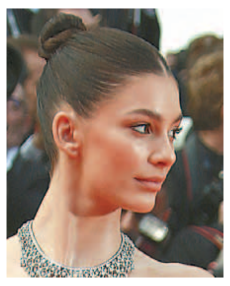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왼쪽)와 브래드 피트가 22일(한국시간) 제72회 칸 국영화제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궜다. 경쟁부문 초청작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주연인 두 사람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칸(프랑스) | AP·뉴시스

타란티노 감독 경쟁부문 출품작 '원스 어폰 어 타임…'의 두 주인공 "50년 전 할리우드 재창조" 호평 디캐프리오, 연인과 등장해 화제

세계적인 스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올해 칸 국제영화제를 통틀어 가장 '눈부신' 레드카펫을 장식했다. 예년에 비해 스타급 배우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레드카펫 이슈마저 부족한 칸 국제영화제가 중후반에 접어들며 섹시한 매력을 풍기는 두 배우의 등장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빛나는 두 별…레드카펫 위의 사랑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22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칸 국제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 위에 나란히 섰다. 경쟁부문 초청작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주연 자격이다. 이들이 함께 출연한다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부터 '역대급 캐스팅'이란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이날 레드카펫 주변에는 영화 팬은 물론 각국 영화관계자들까지 대거 운집했다.


디캐프리오의 연인 카밀라

특히 디캐프리오는 '일'하러 온 레드카펫에서 '사랑'도 다졌다. 1974년생인 그는 자신보다 무려 23살 어린 아르헨티나 모델로 화이트 튜브톱 드레스 차림의 연인 카밀라와 함께 레드카펫 위에 섰다. 대신 영화와는 무관한 만큼 두 사람은 시간차를 두고 극장으로 향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할리우드 스타가 풀어낸 50년 전 할리우드

국내에서도 막강 팬덤을 가진 브래드 피트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20년을 훌쩍 넘기는 경력 속에서 처음으로 동반 출연했다. 때문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칸은 물론 국내 관객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동시에 받고 있다.

할리우드 톱스타인 두 배우가 50년 전 할리우드 배우들의 이야기를 펼쳐낸 점 역시 눈길을 붙잡았다. 1969년 미국 LA가 배경인 영화에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TV 서부극 전문 배우인 릭 달튼 역을, 브래드 피트는 달튼의 대역인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 역을 맡아 할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물들을 현실감 넘치게 그렸다.

사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올해 경쟁부문 초청작 21편 가운데 가장 '사연 많은' 영화이기도 하다. 칸 초청이 유력하게 전망돼 왔지만 편집 등 후반작업이 늦어진 탓에 출품하지 못했다. 하지만 칸은 이례적으로 후반작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렸다 뒤늦게 경쟁부문에 추가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집중적인 스포라이트 속에 작품을 공개한 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영국 가디언의 유명 영화평론가인 피터 브래드 쇼는 "LA의 눈부신 구원의 노래가 완성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별 다섯 개 만점을 선사했다. 미국 버라이어티 역시 "놀라울 만큼 50년 전 할리우드를 재창조했다"고 평했다.

칸(프랑스) | gofl1024@donga.com

'21세기 비틀스' BTS 비틀스 박물관서 초대

英 웸블리 공연때 방문할지 관심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영국 비틀스 전시관을 방문할지 여부에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리버풀의 세계 최대 비틀스 상설 전시관 '비틀스 스토리'가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박물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공식 초청했다. 비틀스 스토리는 비틀스 멤버들의 고향인 리버풀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이들의 악기를 비롯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팬들은 이들이 6월1·2일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앞뒤 박물관을 찾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15일 멤버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미국 CBS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출연해 'BTS'라고 씌어진 드럼 세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이 화제를 모으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1964년 비틀스가 CBS '에드 설리번 쇼'를 통해 미국에 데뷔하는 장면을 재현하며 '헤이 쥬드'를 불렀다. 역시 1960년대풍 정장을 입은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방탄소년단을 "제2의 비틀스"라고 표현했다. 드럼 세트의 'BTS' 역시 1964년 당시 'THE BEATLES'란 로고를 대신했다.

실제 방탄소년단의 박물관 방문 여부는 미정이다. 이미 올해 공식 일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전후한 2~3일 정도 일정이 비어 있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월드투어 일정으로 해외 체류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연장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런던에서 리버풀까지는 기차로 2시간 반가량 소요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칸 이모저모

봉준호 감독과 '설국열차' '옥자'를 함께한 틸다 스윈튼(오른쪽)이 딸과 '기생충'을 응원하기 위해 상영관을 깜짝 방문했다. 칸(프랑스) | AP·뉴시스

틸다 스윈튼, 봉준호와 '의리' 과시

●…영국배우 틸다 스윈튼이 22일(이하 한국시간) '기생충' 공식 상영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과 2013년 '설국열차'를 함께 했고, 2017년 '옥자'까지 작업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데드 돈트 다이'의 주인공이기도 한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을 응원하고자 상영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좌석에 앉은 틸다 스윈튼을 힘껏 끌어안았다.

경쟁부문 초청작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왼쪽)과 부인 다니엘라 픽. 칸(프랑스) | AP·뉴시스

쿠엔틴 타란티노까지 "스포 금지"

●…또 다시 '스포일러 금지령'이 내려졌다. 봉준호 감독에 이어 이번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나섰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선보인 감독은 영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칸에서 작품을 나눌 수 있어 긴장된다"는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 영화를 볼 관객을 고려해 어떤 것도 누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마동석, 마침내 칸 입성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하는 영화 '악인전'의 주연 마동석이 22일 칸에 입성했다. 그의 칸 국제영화제 참여는 처음이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김무열, 김성규와 함께 온 마동석은 23일 오전 5시30분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악인전'을 공개한다. 2016년 칸에서 '부산행'을 공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